

금호석유화학, 바이오에탄올 참여

바이올시스템즈와 MOU 체결 ... 2009년 파일럿 플랜트 건설 착수

금호석유화학이 벤처기업과 손잡고 바이오에탄올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바이올시스템즈와 6월29일 금호아시아나 본관에서 해조류를 활용해 신 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바이올시스템즈는 R&D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 인력들이 연구원직을 겸직하면서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원천기술을 토대로 만든 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창업 벤처기업이다.

바이올시스템즈는 현재 생산기술연구원이 2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환경에너지본부장을 지낸 김경수 박사를 비롯한 연구원, 전문 투자자들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올시스템즈와 금호석유화학은 타당성 검토 작업을 거쳐 2009년 안으로 하루 4000리터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바이올시스템즈 관계자는 “파일럿 플랜트에는 당화, 발효, 바이오에탄올 농축 등의 공정설비를 갖추게 되며 시운전을 통해 양산화 기술을 확보하면 하루 40만리터를 생산하는 플랜트 건설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29>